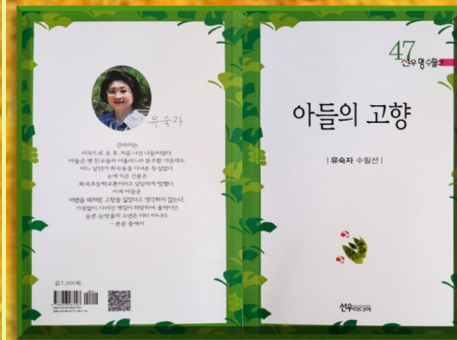




## 신간 소개 - 유숙자 수필가 선수필집 출간



2004년 4월 방문 시 <선우명수필선>을 처음 만났다. 문단의 어른께서 <선우명수필선> 30권을 선물해 주셨다. 그때의 기쁨과 감사를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들은 내 책장 눈높이에 나란히 앉아 주인의 한가한 틈새를 비집는다.

1990년부터 쓰기 시작하여 2022년에 이르기까지 수필집에 담겨있는 글 중에서 28편을 골랐다.

결혼 56주년을 맞는 해에 선집의 기회를 마련해 주신 이선우 대표께 깊이 감사드린다.

2022년 초여름 Glendale에서 유숙자

## 최미자 회원 북사인회

재미수필가 최미자 씨 네 번째 수필집 『날아라 부겐빌리아 꽃잎아!!』

### 작가와 함께하는 북사인회

"북사인회에서 판매된 수익금은 전액 한국관에 기부됩니다"

- 일시: 2022년 9월 25일, 오후2:00~5:00
- 장소: House of Korea(한국관)  
2149 Pan American Rd. West, San Diego, CA 92101
- 금액: \$15
- 판매처: LA 세종문고, 가든그로브 길벗악국, KYOBO 교보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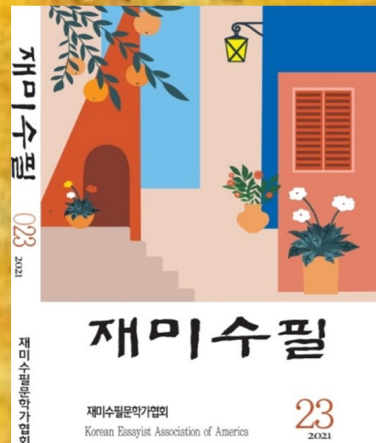
## 이희숙 회원 출판기념회

수필의 향이 있는 출판기념회에 초대합니다



10. 15. 22  
토요일 12시

353 W. Commonwealth Ave  
Fullerton Library



## ‘재미수필’ 제 23집 출간 (2021년)

<재미수필 제 23집>

회원 44명 작품 수록

자유제 62편 / 테마: 여행, 가벼운 일탈 8편 /

특집: 4·29 폭동 30년, 그때를 회상하다 8편

제08회 재미수필문학상 수상작 1편

제16회 재미수필신인상 수상작 5편

총343 페이지

구매 연락처

이메일 - jaemisupil2021@gmail.com



새미수필문학가협회 뉴스레터 제 79호

# 프전수필

2022 FALL

Korean Essayist Association of America

새미수필문학가협회

85



01 협회장 에세이	이현숙	눈앞에 펼쳐진 모네처럼
02 추천수필	박연구	바보네 가게
03 추천 시	목필균	10월의 시
04 회원수필	박유니스	진심이 담긴 배려
05		유튜브 채널 <재미수필>
06	김석연	자기 도취증
07	한 영	새 친구가 오고 있다
08	공순해	김발 위에서 태어나는 수필
09		제17회 재미수필신인상 입상자 발표
10	임지나	카우아이 섬(Kauai Island) 여행
12	신순희	우산 속으로
13		동네방 모임 / 회비납부 현황
14	전월화	우리들의 데미안은 누구인가
16	신혜원	무르익는 가을에
17 공부합시다	이운경	쉽고 재미있는 수필이 최선인가
20 가을호 행시	김수영 외 7명	<단풍나무>
협회 소식 및 회원 동정		
타 문인협회 소식		
회원 신간소개		
유숙자 선수필집 <아들의 고향>		
제24회 재외동포 문학상 수상/ 조성환 <일반 산문 우수상> 박종진 <단편소설 우수상>		

### 재미수필문학가협회 모임 안내

#### -월례회-

ZOOM Meeting / 대면모임

#### - 연락처 -

Korean Essayist Association  
of America (KEAA)  
4946 East 6th St., LA, CA 90022  
웹사이트: <http://jaemisupil.com>  
이메일: [jaemiupil2021@gmail.com](mailto:jaemiupil2021@gmail.com)

#### -지역별 동네방 모임 -

(작품 합평, 문법 수업, 친목 도모 등)

벨리방: 김화진/이리나 [cathrina0314@gmail.com](mailto:cathrina0314@gmail.com)  
엘에이방: 여준영/신혜원 [sokaikie@hotmail.com](mailto:sokaikie@hotmail.com)  
토렌스방: 김카니/최근자 [apoconie@yahoo.com](mailto:apoconie@yahoo.com)  
온동네방: 박진희/김민정 [jineepgh@gmail.com](mailto:jineepgh@gmail.com)  
오렌지방A: 성민희/이희숙 [janeyu36@gmail.com](mailto:janeyu36@gmail.com)  
오렌지방B: 한영/권조앤 [hahnyoung29@gmail.com](mailto:hahnyoung29@gmail.com)



색다른 경험이다. 클로드 모네 물 입 전시회(Immersive Experience)다. 전시장 입구에 부리부리한 눈매가 인상적인 모네 사진이 천장에서 바닥까지 길게 늘어져 방문자를 무덤덤하게 맞이했다. 그의 작품은 특별한 미술 지식 없어도 좋은 경치 구경하듯 편하게 감상할 수 있는 매력이 있다. 19세기 당시 ‘살롱전’에 출품했던 ‘해돋이. 일출’을 한참 들여다보았다. 평론가들은 기본기도 갖추지 못한 그림이라고 신랄한 평을 했지만, 인상주의 화풍을 탄생시킨 작품이다. 캔버스 위에 짧은 붓 터치로 물감이 우툴두툴 겹겹이 묻혀져 있다. 물 위에 번지는 붉은 해가 잔잔한 물결을 타고 흘러와 그 끝자락이 내 손가락을 간지럽히는 느낌이다. 순간적이고 사라지기 쉬운 빛과 색채를 캔버스 위에 고정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을 듣는 작품이다. ‘아! 모네가 맞다.’

다음 방은 프랑스 파리 지베르니 연못을 재현해 놓았다. 43년간 작품 활동을 하면서 마지막 생애를 마친 곳으로 말년에 그린 작품은 대부분 정원을 소재로 했다. 바닥에는 크고 작은 수련이 동동 떠다니고 색색의 잉어들이 무리 지어 춤을 추었다. 카펫 바닥 위에 빛이 만들어낸 마술이다. 호기심에 물 아닌 물 위를 걸으며 혹시 그들을 밟을까 봐 조심스레 발을 옮겼다. 아차 하는 순간 잉어들이 어느새 내 신발 위를 헤엄쳐 지나며 금빛 물그림자를 흔적으로 남겼다.

검은색 커튼을 젖히니 미디어 아트 방이다. 모네의 작품이 360도로 벽을 쪽 돌며 눈앞에 펼쳐졌다. 실제 그림보다 몇 배 확대되어 붓 터치 하나하나를 들여다볼 수도 있다. 빛과 색의 물결이 나를 덮는다. 물결치는 색과 빛의 파도에 휩쓸려 얼굴과 손이 초록색이 되었다가 어느새 노랗게 변했다. 그의 작품에 나오는 정원 속 여인이 되었다가 생 라자르 기차역에 서 있기도 했다. 앞에서 사진

을 찍는 여인이 입은 흰색 셔츠는 수양버들 잎새가 떠올랐다가 양산이 펼쳐지고 잉어가 춤을 추었다. 현란한 물결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모션 그래픽 영상으로 실제와 허구가 공존했다. 클래식 음악이 분위기를 더해 마치 작품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생동감을 느꼈다. 모네의 삶과 작품은 눈과 마음을 헤집고 황홀감을 선사했다. 빛이 전부라고 믿었던 화가는 햇살이 전하는 마법의 순간을 재빨리 예술로 완성해 후세들이 호강한다.

모네의 그림만으로도 전해지는 메시지가 강한데 시각과 청각을 자극하는 멀티미디어가 보태지니 또 다른 세상이 보였다. 시각 정보가 관람자를 뒤덮어 그 안에 자연스레 몰입해 공감대가 배로 늘고 이해가 빠르다. 전통적인 관람 형식에서 벗어나 전시 공간을 자유롭게 거닐거나 심지어 누워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어 좋았다. 작품에 어울리는 향기를 연구해 후각까지 느낄 수 있게 하는 전시회도 곧 열린다니 오감을 뛰어넘어 어디까지 발전할지 기대된다.

요즘 문학계에도 많은 작가가 유튜브를 통해 자신의 작품에 음악과 함께 영상으로 올리는 작업을 한다. 눈으로 읽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독자들을 위해서다. 본 협회에서도 유튜브 채널로 회원의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거리와 시간에 제약받지 않는 인터넷상에서 더 넓게 작품을 나누고 소통하는 것이 목표다.

멀티미디어 시대에 수필도 독자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한다. 기다리지 말고 앞에 펼쳐야 한다. 모네가 “시시각각 변화는 빛과 색은 종일 나를 집착하게 만들고, 즐겁게 하고 또 고통스럽게 만든다.”라고 했다. 글을 쓰는 우리의 마음도 그렇다. 그래서 멈출 수가 없다. 변하는 시대를 따라가기 버겁지만, 맞추어 가야 한다. 눈앞에 펼쳐진 모네의 변화가 그걸 알려준다. 🍀



우리 집 근처에는 식료품 가게가 세 군데 있다. 그런데 유독 '바보네 가게'로만 손님이 몰렸다. '바보네 가게' - 어쩐지 이름이 좋았다. 그 가게에서 물건을 사면 쌀

것 같이만 생각되었다. 말하자면 깍쟁이 같은 인상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물건을 같은 값을 주고 샀을지라도 싸게 산 듯한 기분을 맛볼 수 있었다.

나는 아내에게 어째서 '바보네 가게'라고 부르는가고 물어보았다. 지금 가게 주인보다 먼저 있었던 주인의 집에 바보가 있었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불러오고 있는데, 지금 주인 역시 그 이름을 싫지 않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그 집에서는 콩나물 같은 건 하나도 이를 보지 않고 딴 가게보다 훨씬 싸게 주어 버려 다른 물건도 으레 싸게 팔겠거니 싶은 인상을 주고 있다는 거다.

어느 작가의 단편 <상지대(商地帶)>의 이야기가 생각난다. 똑같은 규모의 두 가게가 마주 대하고 있는데, 계산에 밝은 인상의 똑똑한 주인의 가게는 파리만 날리고 바보스럽게 보이는 주인의 가게는 손님이 많아 장사가 잘되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보 주인의 상술인즉 이러했다. 일부러 말도 바보스럽게 하면서 행동을 하면 손님들이 멍텅구리라 물건을 싸게 주겠거니 하고 모여든다는 것이다. 사람마다 자기가 똑똑하다는 걸 인식할 때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한다는 심리를 역으로 이용한 거다.

바보와 비슷한 이름이 여러 개 있다. '멍텅구리 상점', '돼지 저금통' '곰선생' --이 얼마나 구수하고 미소를 자아내게 하는 이름들이냐. '멍텅구리

상점'은 '바보네 가게'와 비슷하니 설명을 생략하고 '돼지 저금통', '곰선생'을 이야기해 보자.

우리 집에 돼지 저금통이 몇 개 있다. 돼지꿈을 꾸면 재수가 좋다는 말도 있듯이 집에서 남자 아이들은 흔히 애칭으로 '돼지'라고 부르는 걸 볼 수 있다. 돼지는 아무거나 잘 먹는 소탈한 성품이어서 자손이 귀한 집 아들 이름을 돼지라고 하는 수가 있다.

우리 아이들은 내가 신발 닦은 값이라도 주면 눈꼬리가 길게 웃고 있는 돼지 저금통 안에 넣어 주지 않을 도리가 없는 모양이다. 내 아내도 50원짜리 은전을 꼭꼭 자기 돼지 저금통에 넣어 오고 있다. 그래서 나는 50원짜리 은전이 생기면 퇴근 후에 웃옷을 받아 드는 아내의 손바닥에 한 닢 혹은 두 닢을 놓아주는 것이 즐거움의 하나가 되었다.

돼지를 미련한 짐승으로 보지만 그렇지만도 않다. 우악스럽게 기운이 센 멧돼지가 힘을 내면 호랑이도 잡는다. 아무리 영악스런 호랑이지만 멧돼지가 어느 순간을 보아 큰 나무나 바위에 대고 힘대로 밀어버리면 호랑이는 영락없이 죽고 만다.

바보스런 웃음으로 우리 아이들과 내 아내의 동전과 은전을 주는 대로 삼킨 돼지 저금통이 어느 때가 위력을 부리면 급병이 난 식구를 구해 줄 수도 있다고 믿어질 때 더없이 애착이 간다.

누구나 학교 다닐 때 '곰 선생'이란 별명을 지닌 선생님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우직스러운 듯하지만 한없이 좋은 선생님이 아니던가. 그러나 이 선생님이 화나면 그 어느 선생님보다도 무섭다. 곰은 절대로 미련한 짐승이 아니다. 둔한 동작으로 시냇물 속을 거닐다가 물고기가 나타나면 앞발을 번개같이 놀려 잡아낸다. 파리채로 파리를 잡

듯이 그 넓적한 발바닥으로 물탕을 치는 동작이야말로 '곰'이 아니라 하겠다.

친구를 사귈 때에도 너무 똑똑한 사람은 어쩐지 접근하기가 망설여진다. 상대방에게도 만만한 데가 보여야 이쪽의 약점과 상쇄가 가능해서 허물없이 교분을 틀 수가 있는 법이다. 그런데 저쪽이 빈틈이 없는 사람이라면 항상 이쪽이 못한 놈으로만 비칠 것 같아 싫을밖에.

세상의 아내들도 조금 바보스럽거나 일부러라도 바보스럽기를 바라고 싶다. 이 말에 당장 화를 내실 분이 있을 듯하다. 어떤 못난 남자가 제 아내가 바보스럽기를 바랄 것이냐고, 옳은 말씀이다. 내가 말하려는 바보는 그런 통념의 바보가 아니다.

특히 남자들은 직장에서 항상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바보 취급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지만 경쟁의식은 노이로제 증상을 일으키고 열등감으로 피로가 겹친다. 이 샐러리맨이 가정에 돌아가면 또 아내라는 사람에게 신경을 써야 한다. 연탄값, 쌀값, 학비, 의복비 등 수없는 청구서를 내밀면서 지난달에도 얼마가 적자인데 언제까지고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하느냐고 따지면 무능한 가장은 더욱 피로가 겹친다. 설 곳이 없다. 이런 경제 능력 말고도 똑똑한 아내에게 이론에 있어서 달리면 열등 콤플렉스가 되어 엉뚱한 짓을 저지르기 쉽다.

내 생각으로는 대부분의 우리 아내들이 짐짓 바보인 척하는 것 같다. 유행에 둔감한 척 의상비를 자주 청구하지 않는 거는 남편의 수입을 고려함ियो, 무슨 일로 기분이 상했는지 대포 몇 잔에 호기를 부리고 대문을 두드리면 영웅 대접하듯 맞아들이는 매너야말로 활력의 충전(充電) 바로 그것이라 하겠다.

어쩌면 내 집이 바로 '바보네 가게'가 아닌가 한다. 돈은 물론이고 무엇이든 부족하게 주는 나에게 반대급부가 너무 융숭했기 때문이다. 여섯 살짜리 막내딸 아이는 10원만 주어도 아빠에게 뽀뽀를 해 주고 그리고 또...



1991년 <제9회 한국수필문학상>

## 10월의 시

목필균

깊은 밤 별빛에  
안테나를 대어놓고  
편지를 씁니다

지금, 바람결에 날아드는  
풀벌레 소리가 들리느냐고

온종일 마음을 떠나지 못하는  
까닭 모를 서글픔이 서성거리던  
하루가 너무 길었다고

희색 도시를 맴돌며  
스스로 묶인 발목을 어찌지 못해  
마른바람 속에서 서 있는 것이  
얼마나 고독한지 아느냐고

알아주지 않을 엄살 섞어가며  
한 줄, 한 줄 편지를 씁니다

보내는 사람도 받을 사람도  
누구라도 반가울 시월을 위해  
내가 먼저 안부를 전합니다





지난 4월에 있었던 아카데미 시상식에 올해의 남우주연상 후보인 윌 스미스가 부인과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 사회를 보던 크리스 록은 모증으로 머리를 밀어 버린 스미스의 부인을 향해 ‘지아이 제인’ 2편을 보고 싶다며 농담의 소재로 삼았다. 순간 격분한 스미스는 단상으로 뛰어 올라가 록의 뺨을 때렸다.

록이 스미스에게 사과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고 여론은 스미스에게 불리하게 흘렀다. 원인 제공자에게 일차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었는데 상처를 후빈 설봉(舌鋒)은 날이 지나면서 무뎌지는 느낌이었고 검봉(劍鋒)을 휘두른 쪽에 비난의 추가 기우는 것을 보며 장애인의 천국이라는 미국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낙동강 600리가 유유히 흐르다 바다로 흘러 들어가기 직전 허리를 살짝 틀어 물길을 낸 남도의 소도시에서 초등학생 시절의 끝자락을 보냈다. 오래 끌던 휴전협정이 조인되어서 마침내 전장에 포성은 멈췄지만, 포연은 여전히 자욱한 피란지의 냇강에서 다슬기를 줍고 물장구를 치며 해가 저물도록 놀았다. 서울로의 환도 소식은 까마득했지만 그런 일은 아무래도 좋았고 하루하루가 즐겁기만 했는데 그토록 근심 걱정 없는 우리에게도 학교에 가면 명심해야 하는 일이 있었다.

그 당시에는 한 학급에 장애아가 한 명쯤은 있었는데 우리 반엔 두 명의 여학생 장애아가 있었다. 한 친구는 한쪽 다리가 많이 휘어서 걸음걸이가 불편했고 한 친구는 한 쪽 눈의 모습이 정상적

이지 않았다. 이 아이들을 놀리면 담임선생님께 남자아이들은 막대로 엉덩이를 세 대씩 맞았고 여학생들은 눈물이 쏙 빠지게 회초리로 손바닥을 맞았다.

10대 초반의 철부지들이 장애인에 대한 배려심을 무늬만이라도 갖추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의식의 밑바닥에 이미 장애인은 하자 있는 존재라는 인식이 깔려 있었다. 자녀의 혼사를 앞둔 집안에서는 장애 형제자매를 숨기기에 급급했고 식구들에게 철저히 입단속을 시켰다. 우리들에겐 그저 집안의 수치요 동네의 놀림감이었지만 천막 교실 바닥에 책걸상 대신 가마니가 깔린 엉성한 학교에서도 담임 선생님의 규율과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엄하기 그지없었다.

어느덧 우리들은 선생님을 따라 장애아에게 위장된 배려를 베풀기 시작했다. 누가 장애아 친구를 조롱이라도 하면 때를 지어 그를 규탄하고 온반이 나서서 장애 친구 편을 들었다. 그렇게 집단 위선이 모르는 새에 쌓여가던 무렵, 반에서 일이 터졌다. 다름 아닌 장애아 두 친구 사이에 싸움이 벌어진 것이다. 한 명이 눈을 놀렸고 다른 애는 불편한 다리를 조롱했다는데 학교가 떠나가라 울어대는 두 친구를 붙들고 일의 발단과 시시비비





를 가릴 수 있는 사람은 답임을 포함해 아무도 없었다. 두 친구는 일주일도 넘도록 결석했고 두 집 부모만 번갈아 학교에 다녀갔다.

온 반이 패닉에 빠졌다. 어느 쪽이건 가담해서 편을 들어야 하는데 어느 편을 들지 몰라 혼란스러웠고 채 여물지 못한 위선은 방향을 잃었다. 어수선하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드디어 일의 실마리가 풀렸다. 험한 말을 누가 먼저 내뱉었는지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폭력을 쓴 쪽이 밝혀진 것이다. 눈이 불편한 친구가 다리가 불편한 친구를 먼저 밀쳐서 쓰러뜨렸다는 것이다. 마침내 우리는 가담할 편을 결정할 수 있었고 비난할 대상이 정해진 것에 안도했다.

시상식 폭행 사건을 일으킨 월 스미스에게 10년간 시상식 참석을 금지하기로 했다는 아카데미의 처사가 가혹하다고 생각하다가 문득 예전의 일이 떠올랐다. 그때의 철없던 우리도 비수로 찢른 것에 못잡은 양편의 설봉은 슬그머니 잊어버리고 검봉을 휘두른 쪽에 곱지 않은 시선을 던지지 않았던가. 우리가 쏘아 올린 비난의 화살을 맞고 학교를 떠난 친구가 생각난다.

장애는 장애로 인한 불편함보다 장애 때문에 받는 차별이 더 큰 문제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차별받기 때문에 장애인이 되어 간다고도 한다.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인식이 바뀌어야 장애인에 관한 문제가 해결된다는 생각이다. 🍀

## 유튜브 채널 <재미수필>

#01 5월 6일 <첫방송> 협회 연혁과 활동 소개

#02 동인지<재미수필> 계간<퓨전수필> 소개

### [ 재미수필문학상 ]

#03 제4회 유숙자

#04 제6회 공순해

#05 제7회 조만연

#06 제8회 이현숙

유튜브 채널 <재미수필>

회원 작품을 접수 순으로 올립니다.

협회 이메일:

jaemisupil2021@gmail.com

#07 백인호

#08 조옥동

#09 김영교

#10 김석연

#11 정찬열

#12 박유니스

#13 성민희

#14 한 영

#15 퓨전수필 여름호

#16 박신아

#17 김카니

#18 최미자

#19 김혜자

#20 권조앤

#21 박진희

#22 김수영

#23 정조앤

#24 신순희

#25 신혜원



YouTube





Narcissism.

희랍신화에 나오는 말이다. 나르시스는 자기가 너무 예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연못에 비친 자기 얼굴만 바라보다 결국은 제 얼굴에 도취돼 그 연못에 뛰어들어 죽는다. 그래서 수선화가 된 것이다.

나르시스는 수선화인 동시에 자기 도취증이기도 하다. 자기가 제일 잘한다고 착각하는 것,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자부심, 이런 착각은 정도가 약하면 자존감으로 봐주겠지만 정도가 지나치면 아주 고약스러운 교만이 된다. 영어로 치면 자존심이나 교만은 다 pride다. 그래서 인간은 남에게는 관대하지만, 자신에게는 엄격해야만 하는 것이다.

도둑놈 보고 도둑놈 하면 펄펄 뛴다. 내가 왜 도둑이냐? 내가 도둑질하는 것 봤냐고 대든다. 그러나 성인군자에게 도둑놈 그래 봐라. 껄껄 웃고 넘기고 만다. 참으로 겸손한 이에게 교만 방자한놈! 해보라. 아, 내가 그렇게 교만했나 하고 움찔하며 더욱 겸손해진다. 그런고로 제대로 된 인간이라면 자기 자신을 객관화해 볼 줄 알아야 한다.

『쿠오바디스』를 쓴 센키비치의 작품 중에 <흑암 속에 비치는 빛>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다. 주인공 가미웅카라는 조각가가 어둡침침한 작업실에 누워있다. 오랜 병으로 쇠약할 대로 쇠약해져 낡은 침대에 누워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고 있다. 이때 가미웅카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 갑자기 창문 밖으로부터 강한 광채가 휘몰아 들어오더니 작업실 안에 우중충하게 널려 있던 먼지

문은 조각들이 삽시간에 녹아 없어지고 계속해서 낡은 벽들도 다 사라졌다. 그리고 천장과 방바닥까지 다 없어져 버리고 자기는 허공에 붕 떠 있다. 가미웅카는 시원한 공중에서 밑을 내려다본다. 언덕 기슭에 한마음이 보이고 희철한 낡은 집이 보인다. 그리고 창가에 누워있는 비참한 인간을 보았다. 입을 썉 벌리고 이미 굳어버린 시체였다. 그리고 그 시체가 바로 자기 자신이란 것을 알게 된다.

작품의 내용은 이것뿐이다. 작가는 자기 자신을 객관화해 본 것이다. 우리는 흔히 반성이니 회개니, 참회니 하지만 자기 자신을 객관화해 보지 않고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동정적이거나 후한 점수를 주지만, 남에 대해서는 아주 냉철하다. 자기 자신에겐 과잉 동정 상태에서는 자기반성은 이루어질 수 없다. 아무리 잘난 인간이라도 자신에 대한 처방은 언제나 서투른 법이다.

나르시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객관적으로 나를 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절대자라는 신을 정해놓고 그를 통해 나를 봐야 할 것 같다. 🍀





우리 집에는 딸네 집에 없는 게 몇 가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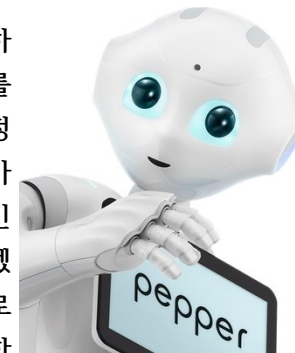
그중 두드러진 것이 벽시계와 달력이다. 시간이 알고 싶으면 습관적으로 벽을 올려다보는데 딸네 집에는 벽시계가 없다. 근시인 나는 딸 집에서는 안경을 찾아서 마이크로웨이브나 비디오 머신의 작은 글자를 봐야 한다. 아니면 휴대 전화를 열어 봐야 한다. 성가시고 불편하다. 연말이 가까워지면 남편은 새로 나온 달력을 잘라서 12달을 다 연달아 붙여 놓는다. 그렇게 벽에 걸어 놓으면 한꺼번에 서너 달을 볼 수 있다. 계획을 세우기도 쉽고 일정을 기억하기도 좋다. 세월이 가는 것도 느낀다. 딸은 그런 달력 없이도 잘 산다.

새로운 것에 적응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세상이 빠르게 변하니 따라가도록 노력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들을 따라서 사회 연결망(SNS)에 가입했다. 많은 내용을 올리지는 않지만, 식구, 친구, 친척들의 이야기를 보고 근황을 알고 싶어서였다. 내가 쓰는 앱을 본 딸이 개인 정보가 쉽게 유출되지 않는 다른 것으로 바꾸라고 했다. 새로 계정을 만들었다. 그런데 웬일인가. 계정 만든 지 이틀 후부터 남자들이 친구 하자는 요청이 연이어 들어왔다. 재미있다고 생각했지만, 불안하기도 했다. 딸이 내 전화기를 뺏아서 설정을 바꿔줬다. 새로운 문물은 따라잡기가 쉽지 않다. 그래도 여행할 때는 신문물의 덕을 보기도 한다. 예전에는 집을 떠나기 전에 중간에 머물 숙소도 예약해야 하고, 지도를 보며 행선지를 충분히 숙지하고 다녔으나 이제는 스마트폰이 많은 것을 쉽게 해결해 준다. 세상이 빠르게 변화되어 왔다. 요즈음은 인공

지능이 주요 화두가 되기도 한다.

가즈오 이시구로의 작품 ‘클라라와 태양’에는 ‘클라라’라는 인공지능 소녀(Artificial Friend)가 화자로 나온다. 클라라가 돌보는 아이가 병이 깊어진다. 아이의 어머니는 ‘인공지능을 탑재한, 인간 모형의 기계가 정밀한 훈련을 통하여 인간과 같은 모습과 정서를 가지고 인간을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는다. 아이가 세상을 떠날 때를 대비하여 클라라를 자신의 아이와 같게 만들기 위하여 가르치고 훈련한다. 하지만 인간(딸)은 인공지능 아이의 도움을 받아 회복하고, 기계는 그 소임을 다하고 폐기되어 진다는 줄거리이다. 기계가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을 대치할 수는 없다는 뜻으로 나는 이해했다. 최소한 그것이 작가가 담으려 했던 메시지라고 짐작한다. 그의 메시지 위에 나도 같은 마음을 엿어본다.

인공지능이 더 발달하여, 개인의 행동 데이터를 모두 종합 분석하여 그 정서에 맞는 개별적 대화가 가능한 로봇 친구가 생긴다면 노년에 외롭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 실제로



요즈음 시니어들을 위한 도우미 로봇을 개발하여 실험 중이랑는데, 자꾸 로봇의 팔이 고장 난다고 한다. 사람들이 그 로봇 도우미를 껴안으려고 잡아당기기 때문이다. 로봇을 사람으로 착각하고 그에 의존하여 결국에는 사람이 로봇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건 아닐까, 마음이 쓰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머지않은 장래에 새 로봇 친구가 내게 올 것 같은 예감이 든다. 🍀





요즘은 감동 마케팅이 대세다. 스토리텔링이 상품의 우열을 좌우한다. 심지어 음식에서마저도. 주방장, 아니 셰프들은 ‘입안에서 파도치는 스파게티’

‘고향 언덕을 넘어가는 백반’ 등으로 자신들의 음식에 품위를 더한다. 말하자면 음식을 창작하는 건데, 이러다 보면 창작품을 만드는 일인지라 식재료 소모가 엄청나다. 식당 직원들 말에 의하면 쓰이는 재료보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재료가 더 많단다.

문학에서 창작 예술은 시, 소설, 희곡 분야뿐이다. 우주 삼라만상이 다 문학의 재료인데 그럼 시, 소설, 희곡의 형식에 매이지 않는 나머지는 어디로 묶여야 하나. 창작 음식에 쓰이고 남은 식재료는 쓰레기통 행이라지만 문학에서 창작 재료로 쓰이고 남은 제재는 모두 수필로 간다. 창작 여부에 따라 창작 수필, 비창작 수필, 단수필, 연작수필로 나누기도 하고 쓰는 목적에 따라 평론, 잡문, 칼럼, 일기, 편지, 기행문, 기사 보도문, 광고문, 기록문, 심지어 일상 제반사의 서식까지, 문자로 이루어진 모든 것을 더듬어 품는다. 이처럼 수필은 우리 선조들이 정별을 꿈꾸던 요동 별판만큼 영토가 넓다.

기호 나름이겠으나 가장 뛰어난 음식은 어떤 것일까. 혹자에겐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이 내는 음식이겠으나 누군가에게는 부엌 바닥에 몽당비빔밥을 깔고 앉아 먹는 일용업니의 양푼이나 바가지 비빔밥일 수도 있다. 식재료 낭비 가득한 음식보다 남은 재료 하나하나 갈축없이 넣고 고추장과 참



기름 한 방울로 비빈 비빔밥. 비빔밥의 미덕은 낭비가 없다는 점, 함께라는 점이다. 그러나 단점은 비비고 나면 재료가 구별이 안 된다는 점이다. 식재료를 알뜰없이 사용하면서도 재료가 식별되는 음식은? 김밥이다.

김발에 수필의 정서란 김 한 장 얹고 그 위에 경험이란 밥을 3분의 2만 펴고, 가지고 있는 소재를 모두 채 썰 뒤 가지런히 얹어 흩어지지 않게 모양 잡아 말면 이게 바로 수필이다. 이때 밥, 시금치, 단무지, 계란, 당근, 등 기본 재료만 넣어서는 뻥한 맛, 신변잡기, 클리셰가 된다. 자기만 갖고 있는 재료도 넣어야 자기만의 맛이 생겨난다. 수필의 창작은 경험의 서술, 성찰과 사유만으론 뭔가 미진하다. 김밥 마감에 참기름을 바르는 것처럼 수필을 구별 지게 하는 것은 상상력이다.

원래 예술 행위가 상상력에서 왔기에 수필이 예술이 되려면, 즉 창작되려면 상상력은 필수다. 상상력을 발휘해 독자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부여해야 창작 수필이 된다. 예술은 창작이다. 고로 수필도 예술이 되려면 창작돼야 한다. 창작

## 17회 재미수필신인상 입상자 발표

올해도 미국 전역에서 많은 응모자가 작품을 보내왔다. 다양한 소재와 형식으로 쓴 좋은 수필이라 읽는 내내 즐거웠다. 짧은 글에 사물의 마음을 담아내고 정서를 풀어내어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 작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고심하며 글을 쓰고, 퇴고에 힘쓴 응모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미주 이민자의 특별한 경험과 일상에서 느끼는 삶에 대한 성찰을 포함하여 소재와 주제가 다양했으나 아쉽게도 당선작은 선정하지 못하였다.

당선작: 없음

가작: 정유환 <골목안 풍경>  
이명숙 <길을 걷다>

장려: 이현인 <흙에서 얻은 행복>  
이진용 <오렌지>  
김영국 <시간 여행하기>  
한남옥 <어느 위대한 여름날의 추억>



신인상 심사위원: 이현숙 박유니스 한 영

수필과 비창작 수필의 출발이 여기서 나뉘게 된다.

현대 예술의 개념은 주제와 해석이다. 창작 수필에서 주제가 창작되려면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있어야 한다. 형상화 과정이다. 형상이라 함은 사물을 말하는 것이니 주제를 사물화하는 것, 혹자는 이 사물을 상관 매개물이라고도 한다. 주제가 정해지면 다음은 서사 전략을 짜야

한다. 이 서사 전략에 참기름 한 방울 같은 상상력을 발휘하면 맛깔나는 한 편의 수필이 탄생하게 된다. 따라서 수필의 경쟁력은 상상력이다. 물론 그 뒤엔 문장론, 구성법, 산문의 정신, 등 각론이 따라야 하겠지만 우선 수필 작법을 김밥 말이에 비유하는 이 착상, 신박하지 않은지... 오늘도 참신한 착상을 위해 고단한(?) 수고를 하는 중이다. 🍀

## 카우아이 섬(Kauai Island) 여행 / 임지나



8박 9일의 여행이었다. 이번 이 하와이 카우아이 섬의 두 번째 여행이다. 3년 전에는 일주일 정도 이 섬에서 묵었다. 그때는 카우아이 섬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좀 어리벙벙했었다. 카우아이 섬은 하와이 주에 있는 섬 중 4번째로 큰 섬이다.

하와이 하면 대부분 오후아 섬(Ohau Island)의 호놀룰루를 연상하지만, 하와이에는 오아후 섬 말고도 또 다른 5개의 큰 섬이 있다. 이 섬들은 캘리포니아 같으면 엘 에이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벤추라 카운티 같은 카운티에 속한다고 할까. 그러나 이곳의 정치인은 카운티 수퍼바이저라 하지 않고 시장(Mayor)이라 부른다.

하와이는 일찍부터 일본 사람들이 자리 잡은 곳이고 그래서인지 유난히 일본 색이 짙다. 일본사람 주 지사에 일본사람 상원의원 하원의원 그리고 섬마다 시장도 거의 100% 일본사람이다.

카우아이 섬은 하와이 6개의 섬 중에서도 자연 풍광이 빼어나게 아름답고 독특한 풍치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카우아이 섬 자체를 ‘정원의 섬’이라고 부르는 모양이다. 섬에는 두 개의 유명한 정원이 있다. 맥브라이드 정원(McBryde Garden)과 앨러튼 정원(Allerton Garden)이 바로 그곳이다. 맥 브라이드 가든에서 가장 볼만한 곳은 뱀부 가든과 뱀부 부릿지다.

하늘이 보이지 않을 만큼 우거진 대나무 숲들과 대나무 다리, 몽키 노 클라임 나무, 모아톤 베이 피그 나무 그리고 하와이 섬의 독특한 헬리코니아 나무의 각가지 다른 모양의 꽃들, 그 희한한 꽃 모양들이 줄잡아 열 가지가 넘는다. 각가지 꽃 모양이 특이해서 말로써는 다 표현할 길이 없

다. 아마 그 섬이 생길 때부터 있었을 것 같은 모아톤 베이 피그 나무 같은 것들은 그물을 엮은 듯 뿌리들이 땅 위로 구불구불 진을 쳐 나무 둘레를 에워싸고 있다.

방문객을 맞는 포근함과 따스함은 비치가에 살짝 걸쳐 앉은 조그만 리후(Lihue) 공항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가방을 찾아 들고 공항 밖으로 나왔다. 살랑살랑 붙어주는 무역풍에 이마 위로 흘러 내린 머리칼을 쓸어 올리자 내 앞으로 까만색과 붉은색의 목 털을 콧코거리며 여러 마리의 장닭과 옅은 갈색에 연 노란색 털을 한 암탉들이 콧코거리며 행진하고 있다. 공항에 웬 닭들의 행진?

나는 난생처음 보는 닭들의 기사(Knight) 행렬에 눈을 떼지 못한 채 한참을 서 있었다. 공항 앞 벤치에 앉아 삼십 분쯤 기다리자 아들이 차를 가지고 마중을 나왔다. 3년 전의 방문 경험이 있었지만 다시 보는 카우아이 섬은 또 다른 낯설음이 있었다.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Two way 길. 짙게 우거진 나무들이 4~5마일 양쪽으로 머리를 맞잡은 나무 터널을 달리며 하늘이 사라진 느낌이였다. 그런가 하면 어느새 휘날어진 꽃으로 온몸을 단장하고 하와이의 시원한 햇살을 마음껏 즐기는 꽃나무들이 거리를 덮고 있다.

드디어 포이푸(Poipu) 비치에 도착했다. 아들은 다이아몬드 리조트 하이야트에 룸을 얻었다. 호텔은 2 베드룸, 2 베스 룸이었다. 확 트인 \*나나이(발코니)에서 태평양 바다가 한눈에 보인다. 어디서 끝나는지 알 수 없는 수평선을 바라보며 잔잔한 바다 위를 뚜벅뚜벅 걷고 싶었다.

카우아이 섬의 모든 것은 거의 원시적이다. 수없이 이리저리 뻗어나가는 물길을 건너 주는 다리도 모두 one way다.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한



쪽의 차들이 모두 다리를 건넌 다음에 반대쪽 차량들이 다리를 건너야 한다. 덕분에 카우아이 섬에서는 하루가 25시간이 넘는 것 같다. 그래도 모두들 그 불편함에 잘 순응한다. 어찌면 그 불편함이 카우아이 섬을 더 아름다운 정원의 섬으로 키우는지도 모른다.

나는 아침마다 해뜨기 전 해변으로 산책하러 나갔다. 어딘지 끝을 알 수 없는 저 먼 바닷가 끝에서 불쑥 솟아오르는 붉은 해. 내 서툰 글로 어찌 카우아이 섬의 일출을 표현할 수 있으랴. 나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아침이면 리조트 뒷길 사이를 걸어 산책하곤 했는데 그들도 나와 같은 마음으로 경이(驚異)를 경험하고자 나온 이들이리라.

카우아이 섬의 북쪽 산림은 그야말로 아마존을 연상시킨다. 섬과 섬을 연결해주는 것은 오직 작은 다리뿐이다. 그것도 바로 원 웨이 다리.

아들은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나를 데리고 끝없이 올라갔다. 얼마쯤 올라갔을까. 깎아지른 절벽 아래로 섬 전체가 다리를 뻗고 배를 내놓고 누워 있다. 푸르고 푸른 바닷속에 초록색 초원이 고요히 잠들었다고 해야 할까. 카우아이 섬이 그렇게 누워 있었다.

어느 꼭대기 초록색 그늘 밑에 아들이 차를 세웠다. 바로 힌두교 사원이었다. 들어가는 입구 군데 군데에 힌두교 불상과 조각들이 세워져 있다. 그리고 바로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 커다란 바구니가 놓여 있다. 그 안에는 온갖 색깔의 넓고 길쭉한 천 조각들이 수십 개씩 들어있다. 이 사원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나 그 바구니 안에 있는 천으로 치마를 둘러 입고 경건하게 사원을 둘러봐야 한다. 힌두교 사원 관광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은 그야말로 가파른 낭떠러지다. 굴곡이 심한 외나무다리를 건너기 위해 일초도 탄생각을 할 수가 없었

다.

그다음 날에는 아들은 나를 맥브라이드 가든과 앨러튼 가든 관광을 보내주었다. 맥브라이드 정원은 순 천연 하와이 식물이 자라는 정원으로 카우아이 섬에서만 자라는 폴리시아스 레이스모사란 특이한 식물이 이 맥브라이드 정원에 있다.

또 굽힐 줄 모르고 올라서 하늘과 입맞춤한 대나무 숲이 넓은 정원을 덮고 있다. 이 정원들은 카우아이 섬 남쪽에 자리 잡고 있다. 앨러튼 정원은 식물원과 인어 그리고 인공 시냇물과 분수가 설치돼 있다. 정원에는 '마리아에 비프스테이크, 섹스싱크, 레인보우, 팬돌라 펜덴트, 트로픽스, 랍스터클로우' 등 열 가지가 넘는 하와이 산 헬리코니아(Heliconia)를 볼 수 있다. 또 순 하와이 산 알피니아 세롬벳 셀 진저, 레드 진저, 칼라시아 루테아시가 진저(생강)도 볼 수 있다.

카우아이 섬의 아름다움, 신비로움, 푸른 정원을 내 빈약한 글 솜씨로 다 표현할 길은 없다. 백문(百聞)이 불여일견(不如一見)이라 했던가.

인생은 짧다. 궁금해 하지 말고 한 번쯤 꼭 가볼 일이다. 🍀





창밖에 비가 온다. 아직은 늦가을, 비가 추적거린다. 시애틀에서는 웬만한 비는 맞고 다닌다. 비가 와도 좀처럼 우산 보기 힘들다. 그만큼 폭우는 아니다. 가을에는 비가 와야 시애틀답다. 나는 지금 빗소리에 빠져있다.

우산이 귀하던 시절이 있었다. 비 오는 날 아침, 먼저 집을 사람이 좋은 우산을 가지고 나갔다. 아버지 우산은 정해져 있었다. 오빠는 일찍 나가고, 내 차례에 남은 몇 개의 우산을 아무리 뒤적여봐도 살이 부러진 우산뿐, 멀쩡한 게 없었다. 그중 괜찮아 보이는 우산을 받치고 집을 나섰다. 살이 부러져 우산 한쪽이 일그러진 게 맘에 걸렸다.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여중생이었다. 그때 나는 빗속에 선명한 노란 우산을 갖고 싶었다.

아침부터 우산 없이 학교 가는 남학생이 지나갔다. 까만 학생모 챙 끝으로 빗물이 떨어졌다. 안쓰러운 그 남학생을 우산 속으로 불러 함께 버스 정류장까지 가면 좋겠건만, 나는 차마 우산을 씌워줄 수 없었다. 책가방이 방수가 아니었는지 비를 맞으면 책도 젖었다. 주눅이 든 마음도 젖었을까. 너나없이 가난하던 시절이었다.

비 오는 날, 교실 뒤에는 우산을 꽂아두는 양동이를 두었다. 검고 파란 우산들이 꽂혀 있었다. 아버지 우산같이 보이는 손잡이가 근사한 신사용도 보였다. 수업이 끝나고 새로 산 우산이 없어졌다고 발을 동동 구르던 친구가 있었다. 누군가 제 것으로 착각해서 가져갔겠지, 설마 고의로 집어 갔을까. 그다음 날도 비가 내렸고 친구는 양동이에 서 바뀐 우산을 되찾았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억이다.

한여름 소나기는 후련했다. 학교가 파한 뒤 적선동 뒷길에서 광화문 뒷골목까지 갑작스러운 소나기에 불은 빗물이 무릎까지 찼다. 한 손으로는 교복 치마를 건어 올리고 한 손으로는 책가방을 올려 들고 물속을 걸었다. 걸음이 제대로 걸리지 않았다. 여기저기 점점이 십 대 소년 소녀들이 빗물속을 휘저었다.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다. ‘광화문’ 하면 서울 한복판 아닌가. 그런데도 그 시절엔 소나기에 대처를 못해 금세 물이 넘쳤다. 어른들은 심각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규제에서 풀린 기분이었다. 물살을 가르며 집으로 가다니, 무언가 자유로웠다.

비바람에 완벽한 우산은 없다. 머리 위 비를 막아주어도 옷이며 신발이 젖는다. 그땐 우산살이 왜 그리 잘 부러지고 녹이 슬었는지, 새 우산도 얼마 못 가 망가지기 일쑤였다. 집에 우산이 많아도 온전한 게 별로 없고 식구는 많았다. 그래도 비 오는 날 우산은 필수여서 한 개를 선택해야 했다. 생각해 보면 나의 십 대는 살이 부러진 우산이었다. 다 펴지 못한 우산처럼 자신감이 없었다.

이십 대에는 더는 망가진 우산을 들지 않았다. 교복 차림이 아니니 우산도 개성이고 패션이다. 어머니는 내게 예쁜 우산을 들라고 하셨다. 찌뿌둥한 날에는 작게 접는 우산을 들고 다녔다. 그러다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우산을 짹 펼치면 됐다. 마음도 활짝 펴졌다. 나만의 우산 속 나만의 공간이었다.

어느 날엔가 흐리던 하늘이 참았던 비를 쏟아내자 지나가던 웬 젊은 남자가 내 우산 속으로 쑥 들어왔다. ‘같이 좀 쓰고 갑시다’하면서 우산을 뺏어온 그 남자가 미덥지 않아 잔뜩 긴장했는데, 버스



엘에이방 (Zoom)  
 벨리방 (Zoom) 9월 18일  
 토렌스방 (대면모임) 8월 31일 9월 28일 10월 19일 (예정)  
 오렌지방A (Zoom)  
 오렌지방B (Zoom) 8월 1, 15일 9월 5, 19일 10월 3, 17일 (예정)  
 온동네방 (Zoom) 9월 25일

[ 2022년 회비납부 현황 1월~9월 30일 ]

- \*연회비(\$120): 이희숙(21'12) 임선주 노영매 권조앤 전로사 박종진 김탁제 박연실 김혜자 김수영 김흥기 이해숙  
 유영주 조모세스 김민정 박진희 김영교 공순해 배헬레나 조성환 조옥동 신순희 이종운 양상훈 이원택 신혜원  
 최미자 곽남인 전월화 정찬열 김송희
- \*이사회비(\$200): 이현숙 한영 이리나 김화진 유숙자 정조앤 김석연 성민희 김카니 최숙희 백인호 조만연 박신아  
 이정호 여준영 최근자 임지나 김자넷
- \*출판비(\$150): 김석연 성민희 이해숙 유영주 김수영 김민정 김카니 정조앤 박진희 김영교 박종진 공순해 배헬레나  
 임선주 조성환 김화진 이희숙 백인호 박연실 유숙자 신순희 박신아 이종운 양상훈 이원택 김흥기 이정호 신혜원  
 이현숙 최미자 곽남인 전월화 정찬열 여준영 최근자 한 영 이리나 권조앤 김혜자 조모세스 임지나
- \*협회 후원금: 한영 이리나 김탁제 정조앤 이현숙 김석연 김카니 박진희(2회) 배헬레나 김화진 조만연 백인호  
 이원택 이정호 곽남인 \*서재개설(\$50): 노영매 이종운 이원택
- \*퓨전수필 후원금: 이일영(Lv) 최미자 \*재미수필 23집 판매: 노영매 박종진
- \*본협회는 여러분의 회비와 찬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납하신 회원께서는 아래 주소로 보내주십시오)  
 <연회비 \$120 / 이사회비 \$200 / 출판비 \$150 / 서재 개설비 \$50 >  
 Pay to Order : KEAA 김자넷 Janet Kim 문의: jaemisupil2021@gmail.com  
 주소: 22533 S. VERMONT AVE., UNIT 57, TORRANCE, CA 90502

정류장 근처에 다다르자 그 남자는 고맙다며 우산 밖으로 사라졌다. 그 때만 해도 믿을만한 세상이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유순했다. 그 시절 나의 우산은 아늑하지만, 어딘가 아쉬웠다.

이제 시애틀에 사는 나에게 우산은 필수가 아니다. 차 타고 다니다 잠깐 내려 걸을 때는 비를 맞고, 동네를 걸을 때는 모자 달린 방수 점퍼를 입는다. 우산 쓰는 재미가 없어졌다. 그런데도 우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해변에 어울리는 커다란 우산부터 접는 우산까지, 양산도 두 개나 있다. 많이 가지고 있다고 행복한 건 아니다. 서로 성한 우산 차지하려던 그때가 좋았다.

창밖에 한 소녀가 노란 우산을 받쳐 들고 지나간다. 🍀







남극을 다녀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책장 어딘가에 꽂혀있을 법한 헤르만 헤세가 쓴 책, ‘데미안’을 찾는 것이었다. 남극에서 보았던 알바트로스(한자 이름: 信天翁)라는 새 때문이었다. 이 책은 주인공 에밀 싱클레어가 십 대로 들어서면서 어렸을 때 그에게 주어졌던 밝고, 정돈되고, 규칙적이고, 도덕적인 환경과 관념에서 벗어나, 반대되는 삶의 이면을 스스로 경험하게 되면서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이야기로 헤세의 자서전적 소설이다. 핵심이 되는 친구 데미안, 알의 껍데기를 깨고 나오는 ‘새’, 그 ‘새’가 알바트로스라고 나는 착각하고 있었다.

이 새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우선 독수리, 참새, 까치, 까마귀, 벌새 정도밖에 모르던 나의 무식을 고백해야 한다. 온 세상이 코비드 바이러스 악성 전염으로 앓고 있었고, 따라서 여정도 쉽지 않았지만, 알바트로스라는 새를 볼 수 있고, 알게 된 것은 더 없는 행운이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남극 서식 동물인 몇 종류의 펭귄을 보았고, 물랐던 자연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도 빼어 놓을 수는 없겠다.

남극 대륙(Antarctica)은 여행객을 태운 비행기나 자동차가 갈 수 없다. 바닷바람과 파도를 핸들할 수 있는 큰 배로 가야 한다. 크루즈 배는 보통 오스트레일리아나 아르헨티나, 칠레에서 출발한다. 우리 부부는 비행기로 로스앤젤레스를 떠나, 마이애미를 경유해서, 아르헨티나의 제일 남단 도시인 우수아이아(Ushuaia)에서 크루즈에 승선했다.

‘남쪽 지구 대들보(South Pole)’를 중심으로 형

성된 막대한 얼음덩어리인 남극 대륙은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다. 주인이 없고, 군대가 없는 비무장지대(DMZ)이다. 기온은 화씨로 영하 15도에서 영하 80도에 이르고 4월부터 8월까지의 해를 볼 수 없다. 내가 갔던 3월은 이상기후였는지 온화한 한국의 겨울 날씨처럼 섭씨 0도를 오르내렸다. 일 년 중 이때쯤에 바다 얼음이 어느 정도 녹아서 깨어져서, 큰 크루즈 배로 조각난 얼음을 헤치면서 항해할 수 있다. 크루즈 배는 얼음 해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정박하고, 해변에 갈 때는 조디악 고무배를 이용한다.

지구의 ‘일곱 번째 대륙(大陸)’인 남극 대륙은 바다에 떠있는 거대한 얼음산이라고 보면 된다. 그러나 워낙 거대해서, 바다에 떠서 머무는 얼음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해상에 떠 있는 부분은 빙산의 일부, 빙판 또는 얇은 얼음 쉬트였고, 수면 아래에 빙산(iceberg)의 큰 몸이 잠겨있었다. 일 년 전 얼음산에서 떨어져 나온 A-76이라고 이름 붙여진 빙산은 자그마치 맨해튼의 80배 크기로, 길이 105마일에 너비가 15.5 마일이었다고 한다. (참고: 빙산에 이름을 붙이는데, 작년 이전까지 가장 컸던 빙산의 이름은 B-15이었다). 빙산의 색깔은 조금 농도에 따라 흰색, 옅은 하늘색, 진한 하늘색이었다.

이곳에는 사람이 살지 않고 단기간 머무는 연구 과학자들이 있을 뿐이다. 사람들에 의해서 길든 개, 소, 말, 고양이 같은 동물들은 없고 펭귄, 물개, 바다사자, 이빨 고래, 바닷새들이 살고 있다. 여러 종류의 새 중에, 내가 데미안이 스케치하던 ‘새’라고 착각했던 알바트로스는 여러 면에서 특이한 새였다. 편 날개 길이(익폭)는 평균 11피트

로, 세상에서 제일 크고, 대서양만 빼고 모든 대양(大洋) 위를 나르고, 창공 필요한 높이에 다다르면, 에너지 소비하지 않고 떠 있으며, 날개를 펴려이지 않고 여러 시간 동안 나를 수 있다고 한다. 남극해를 일 년에 세 바퀴 돌고(75,000마일), 평균 수명이 50년 이상이며, 일부일처의 삶을 산다는 이렇게 특이한 새가 멸종 위기에 있다고 하니, 염려되고 슬프다.

알바트로스 새를 데미안 책에서 이리저리 찾아보다가, 결국 책을 다시 읽게 되었다. 다시 읽으니 좋았다. 무엇이 좋았느냐고 묻는다면, 내가 이번에 느낀 헤세는 많이 평범하고, 또 많이 비범한 인성의 소유자였다는 점이였다. 우리 모두가 겪는 외로움, 공포, 열등감과 이를 잊기 위해 애쓰는 우리들의 어설픈 허세나 회피 과정을 정신학자처럼 잘 다루고, 표현했다.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에 입학했다가 퇴교했던 헤세는, 그의 신이 조물주이었음을 부인하는 것까지도 매끄럽게 잘 표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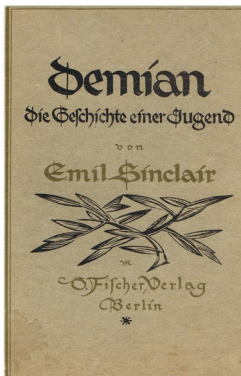
알껍데기를 깨고, 세상으로 나오는 새의 모습은 대문 앞쪽, 길을 접한 곳에 있는 현관 입구, 여기에 세워진 돌로 된 아치, 아치 중간 지점 바로 위쪽 벽에 붙어있는 오래된 문장(紋章)에 조각되어 있었고, 이는 덧칠한 페인트에 가려서 형태가 정확하지 않았다는 것.---바로 이 새를 나는 찾아내야 했다. 그 새는 알바트로스가 아닌, 매(Sparrow hawk)였다. 이론적으로도 헤세가 살았던 유럽, 대서양으로 알바트로스가 날아간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이, 문장(紋章)의 새, 데미안의 의식과 영(靈)을 뜻하는 새가 알바트로스가 아닌 매라는 것을 반증했다.

다시 읽은 데미안 책은 삼십육 년 전에 2볼 95전에 값이 매겨진 반담 책(Bantam Book) 회사가 출판한 것으로 종이는 누렇게 변했고, 책 커버는

너덜너덜하다. 지금 다시 들여다보니, 영역본 33판이었다. 토마스 만이 1947년 4월에 쓴 소개문으로 영역본은 시작된다. 큰아이가 제일 앞장 빈칸에 나의 이름 Monica C.Ryoo라고 첫 줄에, 그리고 6/86이라고 그 밑줄에 써 놓았다. 딸은 그때 11살이었을 게다. 멋 부려서 쓴 딸의 글씨체가 좀 낯설다. 지금 40대 중반을 넘어선 그 애는 멋 부린 글씨를 쓰지 않는다. 그 애의 글씨는 아주 작고, 버려지가 기어가는 것 같은 형태를 하고 있다. 바빠서, 성격이 소심하게 바뀌어서, 완벽주의자가 되어서 글씨체가 변한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위의 모든 것’ 아니면, ‘위의 아무것도 아님’이 정답일까?

딸의 사춘기, 청춘기가 데미안과 싱클레어, 지나간 전(前) 세대들의 그것과 다를 바 없이, 때로는 우울하고, 외롭고 그래서 혼란스럽고, 아프고, 힘들었을지도 모른다. 요구되는 행복이라는 방 안에서 창살 틈으로 빠져나가 버린 희망의 빛을 되찾으려고 방황했을까. 방황의 광야는 어떠했을까. 희망의 빛은 방에서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광야를 지나 되돌아왔을 때, 알게 되었기를 바란다.

남극을 떠나 쉬지 않고 지구를 돌다가, 다시 남극으로 돌아가는 알바트로스가 되지 않아도 된다.



매서운 눈으로 세상을 간과하는 매가 아니어도 된다. 위험이 주위를 둘러쌀 때, 악이 무섭게 달려들 때, 우리는 친구를 부르며 된다. 우리는 우리 속 깊은 곳에 친구가 함께함을 알게 될 것이다. 딸과 우리들의 데미안은 누구인가? 🍀



올해도 어김없이 가을이 스친다. 가을은 언제나 내게 의미 있는 추억을 만들어 준다. 눈물로 쓴 '단감 이야기'는 내게 수필 문학을 접하게 했듯이, 해마다 찾아오는 가을은 또 다른 나를 발견하고 다듬게 한다. 올가을은 김장 김치처럼 한번 붉게 무르익고 싶다.

소녀 시절, 가을이 되면 어머니는 늘 김장 걱정을 하셨다. 그럴 때마다 내게 '너 오빠에게 편지 좀 써라.' 하셨다. 나는 1970년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큰 오빠께 편지를 띄웠다. 비행기만 지나가도 나의 이상형인 오빠 생각이 난다는 감성과 어머니의 염려 섞인 가정 얘기는 오빠와 올케 마음을 움직였다. 한 달 안으로 어김없이 오빠는 공부하면서 힘들게 아르바이트해서 번 100달러를 보내주었다. 어머니는 오빠가 보내준 돈으로 식구들이 추운 겨울을 날 수 있는 김장을 준비하셨다. 나는 그때마다 가을 수학여행을 못 가고, 엄마의 김장을 돕는 일꾼이 되었다.


그래서인지 내 몸에선 늘 김치 냄새가 났던 일을 어른이 된 후 여고 동창들을 만났을 때, 나중에야 알았다. 배려 깊은 그 좋은 친구들은 내가 상처받을까 봐 차마 말을 못 한 것이다. 몇십 년이 지난 후, 귀국했을 때 친구의 웃으며 지나가는 듯한 얘기를 들었다. '친구'라는 시 속에서 김치 얘기가... 바로 나왔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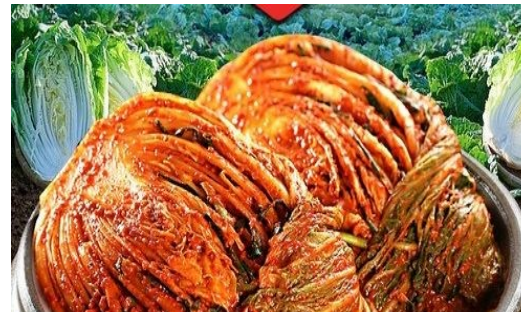
내가 김치의 참맛을 알게 된 것은 미국에 이민해 온 후였다. 몇 주 동안 김치를 못 먹다가 어느 행사에서 점심 식사 때 먹었던 김장 김치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처럼 내 입맛을 살려주었다. 그 후 나는 배추를 사서 조금씩 만들어 먹어보면서 직장에서 필요한 분께 판매하기도 했

다. 그러다 보니 김치와 아주 친해졌다. 김치만 있으면 주부의 반찬 걱정은 반으로 줄어든다. 아무리 화려한 잔치상이라도 김치가 빠지면 다른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가 없다.

이렇게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김치가 맛을 내기 위해 얼마나 참고 죽어야 하는지를 김치를 담그면서 배웠다. 배추가 칼에 베이고, 소금에 절여 죽고 시뻘건 양념 속에 묻혀서 죽고, 김치 통 안에서 폭 익도록 숨 죽였다가 다시 칼에 베여 입안 절구에서 씹힌다. 그때 비로소 너와 나의 입맛을 살려주는 최고의 건강식이 된다. 나도 한번 김치처럼 누군가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감칠맛 나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 것이다.

이 가을에 이왕이면 예쁜 단풍처럼 붉게 물들어 폭 익어가고 싶다. 외형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도, 성품도 성숙해진다면 사람도 점점 익어간다고 표현하지 않겠나. 기왕이면 내가 맛있게 익은 김치처럼 폭 익어서 누구를 한 번 살맛나게 해 보고 싶다. 그렇게 되기 위해 먼저 불쑥불쑥 올라오는 나의 자존심도, 욕심도, 섭섭한 마음도 잘 참아내며 죽어야 할 텐데...

김치처럼 적어도 여섯, 일곱 번을 어떻게 죽여 살는지 이 가을에 다시 한번 김치에게 물어보고 싶다. 





## 1. 좋은 수필의 조건

모든 글은 독자에게 읽혔을 때 완성된다. 독자에게 읽히지 않은 글은 미완의 텍스트이다. 연간 수백 권씩 쏟아지지만 팔리지 않는 수필집은 몇 사람의 독자가 읽을까. 매달 서너 편의 글을 쓰는 나도 회의가 들 때가 많다. 과연 내가 쓴 비평글을 누가 읽거나 할까. 나는 왜 수필보다 더 안 읽히는 수필 비평문을 힘들게 쓰고 있나. 그럼에도 나는 글을 쓸 때 가상의 독자를 염두에 두고 쓴다. 언젠가 한 사람이라도 읽는다면 의미가 있다고 스스로 위안한다. 그렇다고 비평문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쓰고 싶은 생각은 없다.

꽤 많은 상금이 걸린 공모전에 본심심사를 하러 갔다. 나를 포함한 심사위원 세 사람이 최종 순위 선정을 앞두고 의견을 나누었다. 내가 뽑은 우수작품에 두 사람은 난색을 표했다. 좋은 수필작품은 쉽고 재미있어야 하는데, 내가 선정한 작품은 그렇지 않다는 이유였다. 내가 좋은 수필로 선정한 작품은 이전 수상작들과는 다른 감각과 표현으로 해석한 작품이었다. 비유컨대 피겨에서 트리플 악셀처럼 공중돌기를 한 작품이었다. 은유적 표현이 많아 되새김질하면서 읽어야 했다. 두 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하니 나로서는 할 말이 없었다. 그 자리는 심사하는 자리이지 문학성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었기에 한발 물러섰다.

쉽고 재미있는 작품은 어떤 작품인가. 술술 읽히고 의미가 금방 이해되는 작품을 말하는가. 적당히 설탕도 들어가 있고, 적당히 매운 맛도 가미하여 감칠맛이 나는 작품인가. 십여 년 전 대구 수필계 원로들의 말에서 출발한 이 전언은 마치 진리처럼 번져나갔다. 이 말이 수필계에 등장하게 된 맥락을 살펴보면 흥미롭다. 왜 수필집은 팔리지 않는가, 라는 지점

에서 출발한다. 수필가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수준 높은 수필집이 출판되어도 문단과 독자는 냉랭했다. 수필문단에서도 시인이나 소설가 못잖은 문장력 좋고 글 잘 쓰는 선수가 준비되었으니 독자가 찾아 읽는 수필을 써야 하지 않겠느냐는 시대적 흐름에서 탄생한 말이다.

독자에게 읽히는 수필이 되려면 쉽고 재미있어야 한다는 말은 대다수 수필가의 공감을 불러왔다. 마치 수필가가 너무 어려운 수필을 써서 독자들이 찾지 않는다는 뜻이 말이다. 이 전언은 갑갑하던 수필가들에게 서광처럼 다가갔으리라. 그러나 이 전언은 함의한 복잡한 속내를 들여가보면 간단명료하지 않다. 우선 수필이라는 장르를 제대로 대접하지 않는 한국문단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포함되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나친 형상화에 대한 거부감의 표출이기도 했다. 당시 수필은 문학이고자 하는 인정욕구에 매달려 형상화에 목을 맬 때였으니까.

또 다른 이면의 풍경을 추측할 수 있다. 수필을 쉽게 여기고 수필창작교실에 왔는데, 생각보다 수필쓰기가 어려웠다. 구성도 짜임새도 있어야 하고, 어휘 선택과 문장표현이 정확해야 하고, 의미를 부여해야 하고, 문학성을 높이려면 주제를 바로 드러내지 말고 적당히 감추어야 한다는 등등. '쉽고 재미있는 수필'에 대한 찬반 논쟁의 과정은 생략되었다. 그 이후에 '쉽고 재미있는 수필'이 생산되었는지 모르나 갈수록 수필집은 서점에서 팔리지 않았다.

까마득히 잊고 있다가 이 언명을 수필 심사장에서 마주칠 줄이야. 놀라운 사실은 그 전언이 어느새 수필가들에게 하나의 이론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이었다. 공모전 심사기준으로 등장할 정도라니 이미 도그마로 굳어진 것이 아닌가. 놀랍고 경이로웠다. 쉽고 재미있는 수필이 좋은 수필이라는 전언은 틀린 말은 아니다. 그렇다고 옳은 말도 아니다. P 18 쪽 ➡

그 전언은 좋은 수필의 절대조건도 충분조건도 아니다. 수필이 가진 여러 속성 중의 한 갈래일 뿐이다.

## 2. 가벼움과 무거움 사이에서

쉽고 재미있는 수필'에서 숨은 함의를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흥미롭다. 하나는 독자 입장이다. 쉽고 재미있는 책을 찾는 독자도 있지만, 무겁고 진지한 책을 찾는 독자도 많다. 재미있고 쉬운 수필을 생산해야 독자가 읽을 것이라는 전언에는 독자의 수준을 알보는 심리가 숨어있다. 독자는 그리 만만치 않다. 책을 찾아 읽는 독자라면 수필가를 능가하는 지적 수준과 감각의 소유자일 가능성이 높다. 다른 하나는 저자의 입장이다. 쉽고 재미있는 수필만 쓴다는 것은 자신의 경험치 이상의 세계를 담아내지 못한다는 말이다. 체험만이 유일한 자산이며 지적 영토가 척박한 이의 수필이 어찌 독자에게 다가가겠는가.

수필의 존재방식은 여러 갈래로 분화해 왔다. 글쓰기 자체를 목표로 삼는 이도 있을 것이고,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목표로 글을 쓰는 이도 있다. 살아온 자신의 생애사를 기록하기 위해 수필계에 발을 내디딘 이도 있다. 개별적 존재가 살아온 여정에 따라, 작가가 타고난 기질에 따라, 현재 처한 상황에 따라 수필은 가볍거나 무겁거나 심심하거나 짝조름하다. 개별적 수필가의 숫자만큼 수필의 맛은 제각각이다. 수필의 배경 혹은 터전이 삶이라면 쉽고 재미있는 수필만이 유일한 길이 아님을 인정할 것이다.

쉽고 재미있는 수필은 단순명료한 문장을 지향한다. 단순명료한 문장은 딱딱하다. 여기와 저기 두 지점만 존재할 뿐, 그 사이의 수많은 지점은 무시한다. 그런데 독자는 두 지점에만 서 있지 않다. 하나의 어휘에 세밀한 심경과 균열하는 영혼을 담아낼 수 있다는 생각은 오만이다. 단순한 언어는 사고의 한계를 드러낸다. 가능성과 상상력을 무화시키는 쉬운 문장은 수필의 격을 스스로 낮추는 것이다. 재미있

는 수필은 한층 더 어렵다. 타고난 유머감과 능청스러움, 속내를 감추는 구성전략이 필요하다.

쉽고 재미있는 수필만이 독자를 확보하는 최선일까. 설령 쉽고 재미있는 수필이 양산 되어도 독자들은 수필집을 읽지 않을 것이다. 우리를 둘러싼 문화의 흐름과 기조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그리 비판할 문제는 아니다. 문자문화가 지배하던 시대에는 문학이 문화의 중심에 있었다. 활자문화의 대표인 책이 문화의 상징으로 대접받고 유통되던 호시절이 있었다. 수필계의 주류를 이루는 60대, 70대는 활자문화 세대였다. 그들에게 문학은 문화의 최고봉으로서 책과 독서를 숭배하던 세대로 성장했다. 책은 소중하고, 책 속의 말이 진리라고 여기던 시대는 지나갔다. 책은 라면냄비 받침대로 전락했다.

저자의 죽음을 선언한 롤랑 바르트의 전언은 의미심장하다. 저자가 가지던 거대한 권력이 무너졌음을 의미한다. '작가'라는 명칭이 풍기던 아우라를 생각하면 격세지감이다. 작가가 영혼을 바쳐 창작한 작품은 얼마나 소중한가. 유감스럽게도 독자는 영상매체와 인터넷으로 열차를 타고 떠났다. 수필가들만 떠난 독자를 애타게 기다리지 않는다. 소설가나 시인도 마찬가지다.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고 자신의 이름으로 책을 내는 시대이다. 수필가 스스로를 돌아보면 답이 나온다. 누구도 수필집을 사서 읽지 않는다. 저자도 죽고 독자도 없다. 수필의 독자를 기다리는 몸짓은 무망無望하다.

텍스트의 의미 발생은 작가와 독자 사이의 역동적 상호작용이 일어났을 때 일어난다. 예전에는 저자가 중심에 있었다. 독서의 목표도 저자의 의도를 아는 것이었다. 지금은 아니다. 작가의 의도를 따라갈 필요 없이 독자에게 많은 권한이 넘어왔다. 독서의 방법도 비판적 읽기를 통한 독자의 해석으로 이동했다. 작가와 독자는 이제 한몸이다. 수필가는 저자이면서 동시에 독자이다. 누구나 글을 쓸 수 있는 시대로 전환하면서 저자와 독자를 가르던 강이 없어졌

## [ 공부합시다 ]

다. 일기와 쓰기라는 노역을 게을리 하면서 독자를 꾸짖고 수필을 탓하다니! 세상에 쉽고 재미있는 삶이 드물듯이, 쉽고 재미있는 수필만이 좋은 수필은 아니다.

### 3. 읽기와 쓰기의 노역 勞役


모든 텍스트는 독자에게 해석의 대상이다. 가령 독자가 수필작품을 읽을 때 의도대로 독서를 하지 않는다. 동일한 텍스트라도 독자의 층위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 저자의 의도는 항상 어긋나거나 비껴간다. 작가와 독자는 텍스트를 사이에 두고 마주본다. 작가가 글을 쓰는 것도 세계에 대한 해석 행위이다. 작가의 해석물인 텍스트를 읽는 독자도 나름의 잣대로 텍스트를 해석한다. 작가가 쓴 수필작품을 읽는다는 것은 '해석에 대한 해석'인 셈이다. 아무리 쉬운 텍스트도 독자는 책을 읽는 순간부터 해석에 진입한다

언어란 미끄러짐과 어긋남이 숙명이다. 작가가 정확한 문장으로 표현해도 독자는 자기식대로 해석한다. 둘 사이 간극은 메울 수 없을뿐더러, 오독誤讀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어긋남은 문학적 상상력이 발현하는 토대이다. '쉽고 재미있는 문장'은 상상력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본질적 맥락을 간과하고 쉽게 쓰는 것만이 수필의 난맥상을 해결할 처방전으로 나오다니 놀랍지 않은가. 이것이야말로 해석의 오류이다. 수필가로 등단하면 언어부터 달라져야 하거늘, 몸속에 체화된 언어적 관습을 바꾸기란 쉽지 않다. 수필이 재미없는 이유는 교과서에서 본 표현과 언론의 언어를 그대로 옮기기 때문이 아닐까.

수필은 자기 이해와 삶에 대한 해석이다. 있었던 일을 그대로 쓰는 것은 일기이지 수필이 아니다. '해석'이란 행위는 고도의 지적 사유 행위이다. 사건 혹은 사물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심안과 사고력, 떠오르는 생각을 문자화할 수 있는 어휘력과 표현력 등

이 요청된다. 소설가와 시골 장터의 이야기꾼이 다르듯이, 수필 쓰기는 경험 그 이상의 지적 영역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개별적 존재자가 살아온 경험을 글로 옮기는 것은 내 경험을 전달하는 것과는 다른 층위의 행위이다. 쉽고 재미있는 수필을 주장하는 이면에는 독서하지 않고 사유하지 않는 자기합리화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인간 삶의 복잡한 콘텍스트까지 고려해야 하는 문학적 글쓰기가 한정없이 쉽고 편안한 문장이 될 수는 없다. 때로는 간단명료함이나 단아함보다는 복잡성과 다성성을 포착하는 것이 절실할 때도 있다. 사는 일이 복잡다단한데, 인간의 층위가 층층만층인데 어찌 수필만 쉽고 재미있는 것만 추구하겠는가. 밀줄 굵고 싶은 문장,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고 싶은 문장, 곱씹으면서 몇 번이고 읽는 문장으로 된 수필도 창작되고 있다. 쉽고 재미있는 수필은 미천한 지성과 얕은 어휘력에 대한 비굴한 변명이 아닌지 반성해야한다.

그렇다면 어떤 수필이 좋은 수필일까. 표현이라는 측면만을 두고 논하자면 '문장을 읽으면 끊임없이 생각을 유발하는 글'이라고 말하겠다. 수사적 비유를 이어가는 화려한 문장이 아니다. 시선을 집중하면서 텍스트의 전후 맥락을 사유하고, 어느 지점에서 만난 생경한 단어에 한참 머무르게 하는 그런 글이다. 어떤 글을 읽고 나면 자연스레 생각이 떠올라 글을 쓰고 싶다. 관념과 상식의 틈새에 균열을 내면서 감각을 확장해주는 글을 만나면 다시 보게 된다. 수필의 공간을 드나들 때마다 호흡하고 영위하는 사람의 터전을 부단히 성찰하거나 조회照會하게 해주는 글은 울림이 크다. 좋은 수필은 독자에 대한 친절이나 전략의 차원을 넘어서서 수필의 진화를 추동하는 글이다. 삶과 세상의 복잡성을 괄호 안에 묶어버린 채 부분만을 부각하는 글쓰기에서 벗어나야 한다. 



제24회 재외동포 문학상



조성환 수필가  
일반 산문 우수상  
<엘에이 폭동과 민들레>



박종진 수필가  
단편소설 우수상  
<달의 비밀>

단 풍 나 무

(웹사이트 게재순)

김수영

단풍으로 붉게 물던 설악산  
풍년을 노래하듯 바람에 일렁인다  
나목은 없고 온통 불타는 붉은 산  
무릉도원이 따로 있나 바로 이곳이로다

이희숙

단단한 양파 껍질을 벗긴다  
풍요한 기억 속 마음을 들여다본다  
나아닌 누구의 이야기가 들린다  
무한한 존재의 소리에 귀 기울인다

김카니

단단히 묶어둔 어촌마을 작은 어선 하나  
풍랑에 건디다 못해 멀리 바다를 향해 떠밀려 간다  
나무와 바람, 파도가 친구 되어 멀리서 손짓하는  
무인도를 향해 가고 있다

권조앤

단지 그리워만 할 그대인데  
풍각쟁이 따라가면 안 된다는  
나무람을 멀리한 체  
무작정 함께한 애뜻한 여정

신혜원

단단하게 보이는 굵은 나뭇가지 뻗쳐  
풍성한 잎 짙은 녹색 옷 입고 팔팔하더니  
나른해지는 여름이 지나고 나면 너도나도  
무성한 잎들, 단풍 옷 갈아입느라 우수수 바쁘다

박진희

단순한 하루 살기  
풍성한 마음 쓰기  
나를 늘 조울 하기  
무한한 세상보기

노영매

단조롭게만 보이는 호수  
풍덩풍덩 뛰어들까나!  
나도 몰래 심술이 나서  
무조건 그리로 달려가고 있다

김영교

단단히 마음먹고  
풍각쟁이 신세 접었더니  
나 모르게 유튜브 인기 상승  
무지무지 요상한 세상 아닝교!

## 협회 소식 및 회원 동정

- \*유숙자 수필가 선수필집 <아들의 고향> 출간
- \*10월 정기총회(Zoom) 일시: 10월 30일 5pm
- \*이희숙 회원 출판기념회 일시: 10월 15일 12pm 플러튼 도서관  
주소: 353 W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2
- \*10월 정기 이사회(Zoom) 일시: 10월 9일 4pm
- \*최미자 회원 복사인회 일시: 9월 25일 2~5pm 코리아 한국관
- \*9월은 각 동네방에서 작품 토론과 합평의 시간
- \*8월 모임(Zoom) 추천수필 토론의 시간 8월 28일 5pm

## 타 문인협회 소식

- \*제1회 정지용 해외문학상 공모 마감: 10월 11일
- \*제6회 해외꽃시인상 공모 마감: 9월 30일
- \*제8회 미주가톨릭 문학상 수상: 이윤희 소설집(손가락)  
고대진 수필집(순대와 생맥주)
- \*재미시험(Zoom) 8월 27일 6pm 강사: 나민애 문학평론가
- \*제28회 미주문학상: 오문강 시인
- \*미주문협 40주년 문학축제 및 미주문학상, 신인상 시상식  
8월 20일 카페 '헤이리' 9am~9pm 8월 21일: 문학영화콘서트  
강사: 도종환 시인 배창호 감독 손정순 시인 방민호 평론가
- \*미주경희사이버문학 제2집 출판기념회 & 문학세미나 개최  
강사: 노희준 소설가 · 이문재 시인 일시: 8월 17일
- \*제2회 시와정신 해외문학 시상식 일시: 8월 6일 3pm 용궁  
시인상 오연희 · 산문상 이윤희 소설가

## 편집 후기

올해 퓨전수필을 엮으면서 <회원 수필> 지면을 넓히고 작품을 고르게 배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 원고 청탁에 기꺼이 새 작품을 송고해 준 회원들께 감사하다. 일 년에 4번 발행하는 기간지가 소식지로 그치지 않고 회원 작품을 늘리고 창작에 도움을 주는 유익한 정보 제공에 힘쓰겠다. 깊어가는 가을에 모든 분께 평안을 빈다. <조앤>

가을입니다.  
표지 그림처럼 아름답게 단풍이 지는 계절입니다. 제24회 재외동포 문학상을 받으신 조성환, 박종진 수필가 두 분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재미수필 유튜브 채널에 많은 회원의 수필이 실렸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평안하세요. <리나>

## 장간호 발행 1999년

계간 퓨전수필 2022년  
가을호 <10, 11, 12월>  
통권 제79호  
발행일 2022년 10월 10일  
발행처 재미수필문학가협회  
Korean Essayist  
Association  
of America  
4946 East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2  
U.S.A.  
<http://jaemisupil.com>  
[jaemisupil2021@gmail.com](mailto:jaemisupil2021@gmail.com)

발행인 이현숙  
[sook1961@hotmail.com](mailto:sook1961@hotmail.com)  
편집인 정조앤  
[jchung315@yahoo.com](mailto:jchung315@yahoo.com)  
이리나  
[llee439@yahoo.com](mailto:llee439@yahoo.com)

## 표지 그림



Paul Gauguin (1848~1903)  
Stream Autumn 1885